
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환경정책 동향

2020. 6. 5.

[기간 : 6. 1 ~ 6. 5]

동향자료 요약

국가/국제기구	주요 내용
카메룬	- Hysacam사(社), 폐기물 분야 코로나19 방역 프로토콜 선보여(6.3) ▶ 카메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,000명에 육박하면서, 위생 및 살균 관련 기업인 Hysacam은 수도인 야운데(Yaoundé)에서 가정폐기물을 통한 코로나19의 전염을 막고자 보건 안전 프로토콜을 선보임. 2p
핀란드	- 손 소독제에 사용되는 에탄올에 대한 면제상태 지속(6.4) ▶ 핀란드 안전화학물질청(Tukes)은 코로나 대유행사태로 인해 2020년 말까지 소독제에 사용되는 에탄올 법에 대한 부분적 개폐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임. 2p
개발도상국 및 신흥국	-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흥국가 내 규제 지연(6.5) ▶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가 내 우선순위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으로 바뀌는 등 주요 화학 정책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음. 3p

[카메룬, 핀란드, 신흥국] 코로나 관련 외신

- (카메룬) Hysacam사는 자사의 폐기물 수거업자 및 해당 폐기물과 접촉하는 가정을 보호하고자,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분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프로토콜을 가동함(6.3)
 - 관계자는 가정 내에 폐기물이 남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동네 쓰레기통 수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회전율을 높였다고 밝힘.
 - 또한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분류하는 일을 중단하고 약 400개의 쓰레기통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세척 및 소독하고 있음.
 - 한편, 카메룬의 코로나19 관련 보건 위기관리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5,000명을 넘어서고 있음.
 - Hysacam사는 가정과 소각로를 갖추지 않은 보건소에서 마스크나 병원폐기물 등을 버릴 때 비닐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.

☞ <https://www.afrik21.africa/en/cameroon-hysacam-launches-anti-covid-19-protocol-in-waste-management/>

- (핀란드) 손 소독제에 사용되는 에탄올에 대한 면제상태 지속(6.4)
 - 핀란드 안전화학물질청(Tukes, Agency for Safety and Chemicals)은 코로나 대유행사태로 인해 2020년 말까지 손 소독제에 사용되는 에탄올 법에 대한 부분적 개폐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임.
 - 유럽화학물질청(ECHA, European Chemicals Agency)의 승인 공급업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에탄올도 장갑 및 손 소독제에 유효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음. 그러나 에탄올은 핀란드나 EU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.

☞ https://translate.google.com.vn/translate?sl=fi&tl=en&js=y&prev=_t&hl=en&ie=UTF-8&u=http%3a%2f%2ftukes.fi%2fartikkeli%2f-%2fasset_publisher%2ftukes-jatkaa-kasidesien-etanoli-a-koskevaa-poikkeusta

- (신홍국)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개발도상국 및 신홍국가 내 주요 화학 정책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음(6.5)
 - (브라질) 작년 11월 브라질 국회의원은 의회에 국가 화학물질등록을 개발하고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강화시킬 화학물질법안을 제시함.
 - 해당 법안은 원래 지난 2월 하원 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로 연방 상원은 오는 7월 하원 의회 개원을 고려 예정임.
 - (케냐) 국제화학산업의 주요 안전 관련 프로그램인 Responsible Care(RC)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개시되지 못하고 있음.
 - 지난 3월 화학기업과 케냐제조업체협회(KAM, Kenya Association of Manufacturers)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로 정부가 봉쇄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.
 - (멕시코) 멕시코 종합보건위원회(CSG, General Health Council)는 작년 말 주요 국가 화학물질 정책을 제안하며, 올해 중 의회에 법안을 제시하고 2021년까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측함.
 - 위원회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화학 업계와 진행 예정이었던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미뤘으며, 해당 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된 바 없음.
 - (사우디아라비아) 사우디아라비아는 빠르면 2020년 중반에 발표를 목표로 화학물질안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음.
 - 코로나19 사태 및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아직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.
 - (남아프리카공화국) 환경부는 내분비교란물질(EDC, Endocrine-disrupting chemicals), 구리, 카드뮴 등을 포함한 일부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 화학물질목록을 취합중임.
 -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문을 받아야 할 기관들과의 접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느리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진전은 있으며, 완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추가 언급함.